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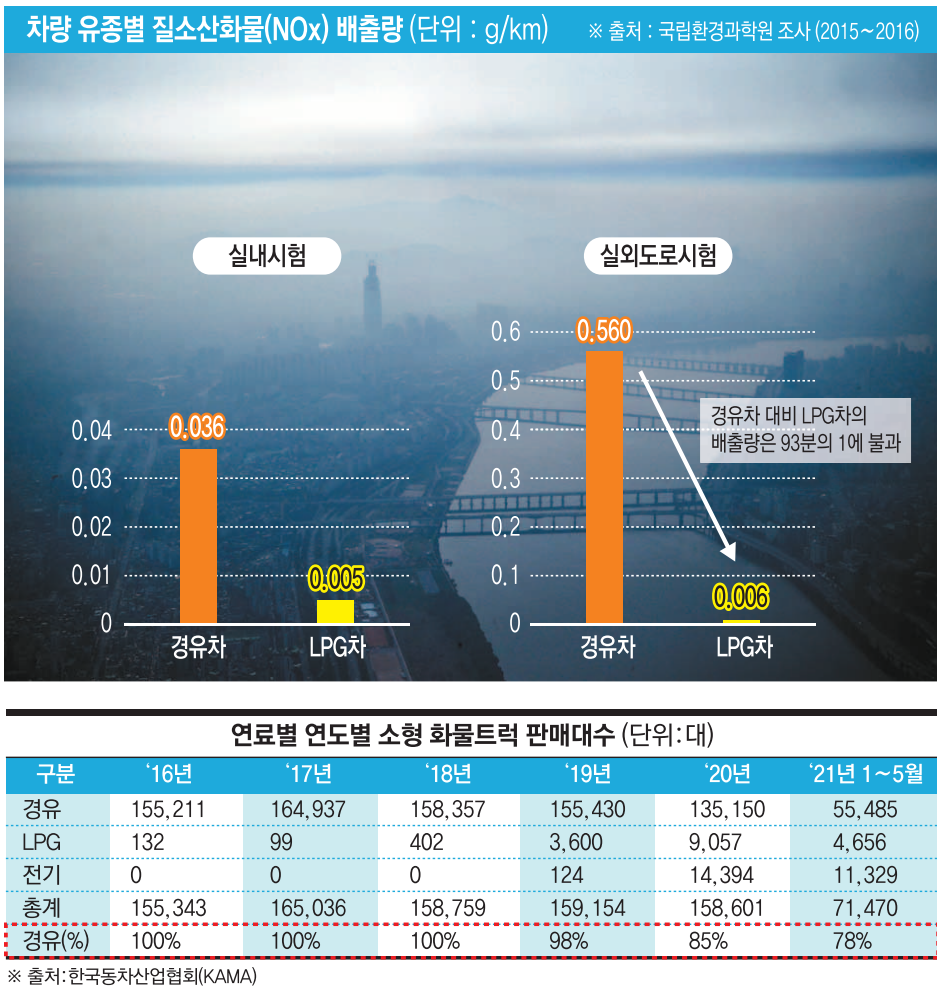
LPG 화물차 보조금 삭감...“소상공인 어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3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지원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도 속속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발이 되어주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LPG 화물차, 노후 경유차 등 대체 2022년, 지원금액 200만원 삭감 “소상공인의 어려움 외면한 처사” 신차 구매 부담...경유차 확산 우려 미세먼지 저감 정책 역행 가능성도

●2022년, LPG 화물차 보조금 삭감·축소 환경부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생계형 차량인 소형 화물차(1톤 트럭 및 밴형 화물차)를 구입할 때 초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올해 정부 지원물량 2만대 중 1만3000여 대가 이미 신청 완료될 정도로 자영업자들도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내년도(2022년) 지원금액을 현행 4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200만 원으로 삭감하고, 지원 규모도 2만5000대에서 대폭 삭감한 1만5000대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



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해주시는 못할망정 생계를 위해 뛰는 그들의 발을 묶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생업을 위해 화물차 이용이 필수적인 소상공인들에게 화물차 구입 보조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었는데, 갑작스런 축소 방침은 부당하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국용달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화물차를 구매해야하는 용달사업자에게 화물차 구입 보조금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생계에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신차 구매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 경유차를 그대로 타거나 중고 경유차를 구

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LPG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기여 전체 화물차의 70%는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다. 특히 2019년까지의 현황을 보면 소형 화물차 연간 판매량 15만대 중 98%가 경유차다. 영업 환경 특성상 저속 주행, 잦은 주차장 및 공회전 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골목길 미세먼지 공장’으로 불린다. 친환경차로의 대세가 시급한 이유다. 경유 화물차를 LPG나 전기 등의 친환경차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 보조금 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유 화물차의 판매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78% 수준까지 낮아졌다. 특히 LPG 화물차는 기존 경유차 폐차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 조기폐차 대상자의 사업 참여율이 74%에 이르

는 등 경유차 대체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LPG화물차 지원사업 신청자 7742명 중 조기폐차 차량 소유자는 5696명이다.

또한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아주 적고, 질소산화물 배출량(0.005)도 경유 화물차(0.036)의 93분의 1에 불과하다. 특히 실제 주행 환경과 비슷한 실외도로시험에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차의 9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국립환경과학원)됐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LPG 보조금 정책을 축소하는 것은 다시 경유 화물차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게 된다는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인기인 화물밴의 경우 경유와 LPG만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LPG 보조금을 축소하면 경유차의 판매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화물밴은 연간 3만대 가량 판매되고 있는데 스타리아 카고모델 가격을 보면 LPG 2842만 원, 경유 2872만 원으로 가격 차이는 30만 원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1톤 LPG 화물차 가격(1559, 기아 봉고3)이 경유 화물차(1805)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연료 효율성을 따져보면 경유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전기 화물차가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LPG 화물차로 보완하며 공존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상공인 단체들의 주장이다.

한국화물협회동조합연합회는 “업종 특성상 화물차 구매가 필수적인데, 전기차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LPG 화물차 지원금을 축소하면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진다. 경유 화물차와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연비 등을 고려해 경유 화물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중화학

스포츠동아 2021년 8월 4일 수요일 15

두산중, 8MW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한다

경남·제주 등과 컨소시엄 구성...51개월간 개발 예정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조감도. 사진제공 |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공모한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2단계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두산중공업은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남동발전, 제주에너지공사, 경남테크

노파크, 고등기술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삼강엔티, 한국해사기술, 세호엔지니어링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진행된 1단계 과제에서는 지자체와 연계한 4곳의 컨소시엄이 선정돼 실증 후보지 발굴, 설계기준 수립, 부유체 후보 검토 등을 수행했다.

2단계 과제에서는 1단계 참여 컨소시엄 간 경쟁을 통해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이 단독 선정됐다. 앞으로 51개월간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설계, 제작, 설치, 상용단지 발굴 등을 수행하며 한국형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2005년부터 풍력사업을 시작한 두산중공업은 현재 국내 239.5MW 풍력발전기를 설치했으며, 이 가운데 96MW는 해상풍력이다.

박인원 두산중공업 Plant EPC BG 부사장은 “국내 해상풍력의 새 가능성을 여는 이번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사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엔솔, 공식 홈페이지 개편...ESG 메뉴 신설

LG에너지솔루션은 3일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콘텐츠 다양화 및 글로벌 홈페이지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리뉴얼(사진)했다고 밝혔다.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메뉴는 ▲Business ▲ESG ▲Company ▲Investor ▲Career으로 개편했다. 특히, 글로벌 트렌드인 ESG 메뉴를 신설하고 메인 화면에도 기후변화대응, 공급망 관리, 자원순환 체계 등 ESG 경영에 관한 주요 전략과 상세한 활동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달 내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도 중국어, 폴란드어, 독일어 등 5개 언어로 운영해 글로벌 사용자와의 접점도 강화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배터리 선도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포스코, 호주 원료공급사 로이힐과 탄소중립 협력 추진

탄소배출 없는 철강제품 생산 등 연구 양사 공동 수소 직접 생산방안 모색

포스코가 호주 원료공급사 로이힐(Roy Hill)과 광산 및 철강업 전반에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수소환원제철공법을 활용한 HBI(Hot Briquetted Iron,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

거(환원)한 가공품) 생산 ▲수소 생산 ▲신재생에너지 사업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인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사업 발굴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양사는 로이힐에서 채굴한 철광석과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접목해 최적의 HBI 생산체계를 도출하는 방안을 공동 연구한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환원철을 만든 후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공동으로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블루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활용·저장에 대기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CCUS 기술 개발과 사업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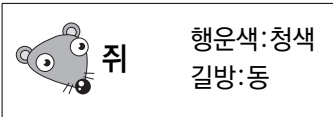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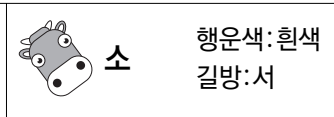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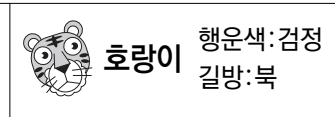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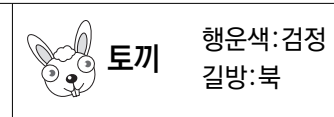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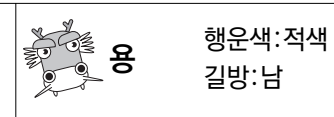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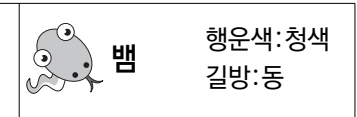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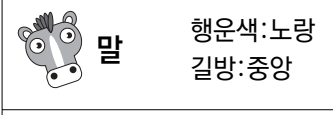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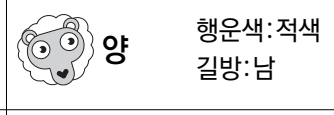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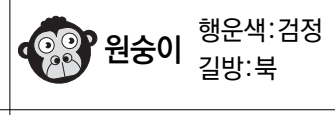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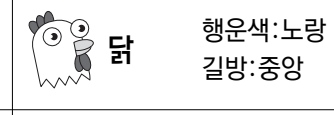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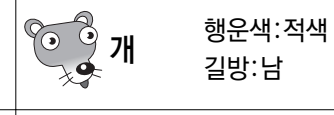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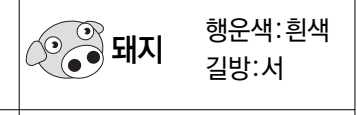
원성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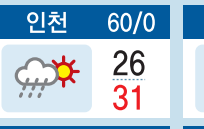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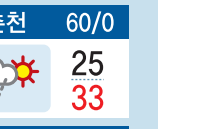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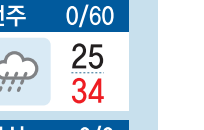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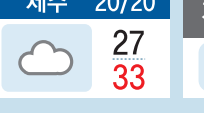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김학동 포스코 철강부문장(오른쪽)과 헨크 베리 피츠제럴드 철광석 사업 총괄 겸 로이힐 이사가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 포스코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4일 (수) 음력: 6월 26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급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아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한 야기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살펴봐라. 오늘은 지살이며 인생일이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신용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변화나 변동 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머리를 쓰라. 이룬다.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 부리지 말라. 오늘은 원승이 날이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오늘은 용이 원승이를 만나는 날이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킬 수 있으니 크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망신살이다.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으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일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오늘의 날씨			4일(수)		
서울	60/0	인천	60/0	춘천	60/0
	26 33		26 31		25 33
강릉	20/0	대전	0/60	전주	0/60
	26 36		25 34		25 34
광주	20/60	대구	0/60	부산	0/0
	25 34		25 35		26 33
창원	0/10	제주	20/20	지역	간수 화를 (오전/오후)
	25 34		27 33	최저	최저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35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세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윤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민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건부장 안형모	고충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릉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